19과 형들을 용서한 요셉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몸 구원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며 저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저희가 저희에게 (잘 안 들림 27-30초)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받은 그 은혜와 사랑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그 중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 주시고 인도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 버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죄와 불순물과 게으름과 교만이 있었다면

저희들 삶에서 제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오직 주님의 마음과 풍만 새겨 주셔서 저희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부족함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교사들 한 자리에 모여서 그들의 말씀을 내놓으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사랑, 말씀과 교훈도 허락해주시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엇을 준비하고 계획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주님의 것으로 채우심을 받고 출발 함으로써 주님의 것으로 그들을 사모하고 먼저 저희들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삶에서 좀더 그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마땅히 이 자리에서 함께 해서 같이 말씀을 배우고 교제를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선생님들 어디에 있든지 기억해주시고 다음엔 꼭 이 자리에 함께 해서 같이 은혜와 사랑 나눌 수 있도록 나눠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35장 찾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 50장 19절부터 21절까

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창 45:4-8)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이 곳에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 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 하고 추수도 못 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창 50:19-21)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은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늘은 형들을 용서한 요셉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약성경에서 대표하고 있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 그리고 또 다윗 그리고 오늘 나온 요셉도 그리스도를 잘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배신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 갔습니다. 야곱 집에서 귀공자처럼 잘 지내고 있었는데 형들의 안부를 가서 보고 오라는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한 다음에 갔는데 그 뒤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애굽, 이집트로 팔려갔고 그리고 거기서 약 13년 동안 종살이와 옥살이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자신의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과 2년의 흉년이 지난 다음에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들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전역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이 요셉의 삶은 그리스도를 참 잘 예표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예수님이 끌려갔고 그리고 요셉은 은 이십에 끌려 갔는데 예수님은 삼십에 팔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감사와 찬양을 받으셔야 될 분인데 이 세상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도 받으셨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다 인수해 주시고 우리들의 구원자가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와 야곱 가족의 구원자가 됐다면 예수님은 만물의 구원자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인물 중에서 흠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만큼은 흠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살인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하나님께 망령되이 말을 했죠. (잘 안 들림 7:34-36) 다윗에게도 도덕적인 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에게는 도덕적인 흠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 요셉 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가장 잘 예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형들을 다 용서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가족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그로부터 종으로 팔려가고 종살이 감옥살이 하면 자신을 판 형들을 쉽게 용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내 지위가 총리로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에게 무한한 힘이 있고 애굽의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잘 안 들림 8:23-26) 그런 총리였다면 형들

에 대한 복수를 하는건 너무 쉬울거 같아요.

그런데 그 형들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들을 인수하고 정말 훌륭한 것은 '내가 형들 뿐만이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까지다 기르겠습니다.' 간곡히 부탁했잖아요.  그리고 혹시 자신을 알리고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길을 주면서 노(路) 중에서 싸울까 봐 간곡한 말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영혼의 크기를 따지면 작은 사람이 아니라 이집트 뿐만이 아니

라 팔레스타인 전체를 담을 만한 그런 영혼의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들을 용서하고 구원자로 세워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성장이라는게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요셉 같은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총리가 되어서 이집트도 통치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도 끼치고 유익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요셉처럼 먼저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울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사로서의 직분을 지금 행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어떤 눈물과 땀이 없다면 그들에게 줄게 없을 겁니다.

신앙적인 성장의 규칙과 하나님에 대한 내용만 전할 뿐이지 그게 진짜 마음을 움직이고 뜻이 바로 세워져서 그에게 신앙을 심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을 심고 남들을 그길을 넘어서 남들을 배려하고 남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저희들을 먼저 부르셨고 또 그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에 주님을 닮은 구원자가 누가 있냐 결국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 했습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자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무엇인들 짜고 어떤 것인들 썩지 않고 보존이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될 역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졌고 특별히 교사들은 그 사람들 중에서 빼어냄을 받아서 정말 그리스도를 잘 예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아이들은 선생님을 보고 선생님 너머에 있는 선생님과 함께 하는 하나님을 볼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인정할거고 그 선생님을 닮아서 그들도 똑같이 행할 겁니다.

우리들이 배우는 공과 말씀 중에서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인물들의 믿음의 결단과 사랑과 순종이 될 때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 했는데 형들을 용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을 받았고 그리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시편 105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105: 17-19)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여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고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은 장차 7년의 흉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을 빼내가지고 이집트로 보내서 총리의 지위를 갖고 있게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살펴보시고, 마치 다윗의 8명의 아니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서 다시 다윗을 예산한거 처럼 하나님은 요셉을 예비하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착고에 상하고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종살이를 한거 잖아요. 그리고 옥살이를 한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생을 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도대체 무얼까 정확히 나와있지는 않지만 요셉이 꾼 꿈을 보고 한 번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은 꿈을 두 번 꾸었잖아요. 첫 번째는 형들의 단들이 일어서서 요셉의 단에게 절하는 꿈이었고, 두 번째는 해와 달과 별들이 일어서서 자기에게 절한 꿈을 꾸었습니다. 즉, 통치자의 꿈을 꾸었잖아요. 그런데 그 통치자의 꿈을 꾸고 형들에게 얘기하니까 형들이 시기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그것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무릎 꿇고 절하는 그런 꿈이잖아요. 우리 같은 무식한 사람들도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형들은 그 뉘앙스를 이해했습니다. 요셉은 철없이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릴 때 형들이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고 했습니다. 과연 그 꿈이 하나님께로 온건지 하나님이 주셨다 아니면 사람이 꾸었다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팔아버렸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그 어려움 겪어가면서 어떤 말씀을 의지했을까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꿈은 기억 했을거 같아요. 자신이 거듭 2번 꾼 꿈,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고 그리고 그 꿈을 기억했을 겁니다 근데 그 꿈하고 자신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 하고 뭔 연관이 있는지는 막 겪을 때는 잘 몰랐을거 같아요. 뭐 종살이 하고 감옥살이 하는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총리가 되었을 때는 짐작을 했을거고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찾아와서 무릎꿇고 절할 때는 진짜 깨달았을거 같아요. ‘ 아, 그 꿈의 의미와 형들이 나를 팔아 넣고 내가 팔려 와서 고생하고 바로의 꿈을 해석 해주고 내가 총리가 된 그 일이 왜 그렇게 됐는지. ‘ 우리가 그랬잖아요. 전도 집회 때 복음 깨닫고 나면 전도 집회 1일부터 끝날까지 좌악 무수이 깨어지는. 그런 깨달음 아마 그렇게 자기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아마 지금까지 좌악 톱니 맞추듯이 머릿속에서 좌악 맞춰지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 같아요.

자, 요셉은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먼저 연단을 받았습니다. 형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물론 그 사람이 인격이 참 훌륭하기는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인격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형들이 배신 했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했고, 보디발의 아내가 많은 유혹을 했습니다.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는 아주 근본에는 바탕에는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다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거든요. 쭉

그래서 부리쳤는데 돌아오는 것은 영광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이었고 이제 종보다도 더 못한 감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감옥에서 정말 위대한 것은 원망 했다 라는게 없어요. 근데 감옥에서도 종살이를 할 때처럼 성실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보면은 39장, 창세기 39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창 39: 19-23)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제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은 남다른 분 같아요. 어떻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갔으면 보통 사람은 화가 나거나 자기 인생을 저주하거나 복수를 다져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요셉은 그냥 주어진 삶에 정말 성실히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의 전옥이 요셉에게 제반 사무를 다 맡기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니까 수종 들게 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본래부터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게 있어서 아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거 같은데  그러나 누구나 어려움에 처하면 뭔가를 해결하려고 자신의 그 어떤 노력을 할텐데 요셉은 그러지 않고 주어진 삶에 충실했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잘 안 들림 19:59)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때 온갖 자신의 수단, 방법을 동원하기를 먼저 꾀냅니다 (잘 안 들림 20:19-20).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고 그 주어진 삶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 했어요.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처했을 때 대처하는 바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냥 없는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믿음을 시험해 볼 때 고난을 결국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드러낼 때 유혹을 역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고난과 유혹이 있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믿음이 죽어버린 것이 되어서 이산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어려움 가운데 넣지만 분명히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시편 66편 읽겠습니다.

시편 66편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66편 9절부터 12절까지

(시66: 9-12)

[그는 우리 영혼을 실려 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움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했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 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두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실족지는 않게 하십니다. 우리는 7번 넘어질지라도 일

어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해 가십니다. 많은 불과 물을 통행하게 하십

니다. 정말 정말 뜨거움으로 견딜 수 없게도 하시고 물에 잠겨서 답답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 위로 이방인들이 타고 넘어가게도 하십니다. 즉, 짧밟히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를 단련하신다고 했습니다. 욥은 이야기 합니다. '내가 단련이 된 후에는 정금 같이 나오리라고 하였습니

다.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단련을 받은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진짜 결국은 정금같이 나왔습니다.

요셉에게도 이 연단의 과정은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신앙의 위인들 치고 연단을 안 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모세, 아브라함, 다윗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연단을 받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잠언 17장 3절에 보면"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고난

과 유혹과 핍박 중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연단해가십니다, 강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풀무에 넣다

가 뺏다가 넣다가 뺏다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시면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만 담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정 통제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라고 말씀 했습니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혹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 배우셨잖아요.

우리들을 정말 성취도로 검사하시려 테스트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를 연단하는 트라이얼(trial)이 될

수 도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템테이션(temptation)이 될 수도 있는데 어느 것이나 우리 믿음의 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을 때 마음이 커지기도 하고 그리

고 그 마음이 순결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우리 창세기 40장 보면은, 창세기 40장 6절 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 40: 6-7)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 빛이 있나이까]

(잘 안 들림 25: 37-39)

이 말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요셉은 얼굴 빛으로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통치자가 되는건 아니잖아요. 저는 자주 얘기하지만 누가 돈을 몽땅 갖다 주면 (잘 안 들림 25: 58-

26: 02) 몽땅 건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보니까 그래도 사업에 성공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교제를 할 기회가 있는데 그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이 사업을 하면서 시대를 보는 안목이 남다르시더라구요.

대화를 해보면 우리들이 못 본걸 보고 그 분은 음식점을 하는 분이었는데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맛있다가 끝인데 이 분은 음식을 드시면서 아, 그래 이거는 뭐가 좋고 이거는 어떤 것 때문에 인기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평상시 본인의 어떤 사고력?(잘 안 들림 26: 50)이 들어 있는

금방. 그러면 그 노하우가 결국엔 돈 버는 재능으로 바뀔텐데 그게 어떻게 생길까 그러면 요셉이 이집트

를 통치하는 총리가 됐을 때 그냥 거저 너 해봐라 라고 해서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종살이와 감옥살이 중에 많은 사람을 섬겨보고 또 (잘 안 들림 27:21-22)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혜를 얻을 수 있었고 특별히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저처럼 철 없이 다니는 사람하고, 변화를 많이 겪으면서 신앙생활, 구원 받고 신앙생활 하는 분 하고 얘기 해보면 깊이가 다릅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이 달라요. 저는 그냥 잘 될거에요. 하나님이 잘 알아서 하실거에요. 저는 뭐 그렇게 해서

하지만. 똑같은 '형제님. 참 어려우시겠는데요. 기도 할게요.' 하고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해도 느끼는 사람의

감동은 다 다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거 하고 정말 많이 겪으신 분이 '기도할게요.' 라고 한마디 하는거 하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왜 다르냐면 정말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서 이겨 나간 사람만이 정말 다른 사람을 위로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붙잡을 수도 있고 정말 그 분을 의해서 용기를 얻고 일어서도록 바뀔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그 많은 어려움이 왜 필요했냐? 형제 자매들을 정말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하나님이 말씀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고후 1: 4)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 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6절 입니다. (고후 1:6)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 사도는 선교여행을 많이 하면서 죽을 위험도 그리고 많은 매도 맞고 여러가지 위협을 많이 겪었습

니다. 성도들은 바울 사도의 생을 들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

실 것이다. 그 환란에서 너희를 구원 해내실거다.’라고 위로하면 정말 위로를 받았어요.

물론 모든 위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정말 안심시킬 수도 있었고 위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 많-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예수님도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과 유혹 그리고 인간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에서 승리하셨잖아요. 그 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 분의 삶은 완전한 삶이었고 의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의 그 의로운 삶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덧입혀 주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용서받은 죄인이고

또 현재 삶 속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니까 그리스

도의 완전한 삶으로 우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과 함께 상의 합니다. 어렵

습니다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할 때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시죠? 기도 가운데 기도 하

면 평화가 옵니다. 왜냐하면 그 분은 다 이해하시고 아시고 도와주실거라고 느끼니까

네, 그 분은 우리를 정말 위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상황을 이해하기도 하고 내가 그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어려운 데에 미리 처하게 한 다음에

거기서 훈련시키고 그 다음 일을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그리고 내가 큰 고난을 받든 작은 고난을 받든 그리고 유혹도 큰 유혹을 받든

작은 유혹을 받든 내가 그 삶에서 적당하게 대처 해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것을 극복해 나

간다면 반드시 우리들 삶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내가 현재 평범한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뭔가가 남기도 하고 남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 삶에서 의미 없는 일은 안 하시잖아요. 요셉에게 그 13년 간의 어려움이 과연 의미가 없었다 라고 그냥 바로 총리로 만들어 주면 뭐 그대로 통치 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면 되니까 하나님은 보통 그렇게 안 하시는거 같아요. 반드시 고난을 먼저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뭔가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일을 맡기시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맡기기 전에 보디발의 가정도 맡겨보고 보디발의 감옥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큰 사람이 되었을 때 야곱과 10명의 형들과 그 자녀들을 맡겼을 때 참 잘 해드렸잖아요. 니다.

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 삶에서 의미 없는 일은 안하시잖아요. 요셉에게 그 13년 간의 어려움이 과

연 의미가 없었다라고 그냥 바로 총리로 만들어두면 뭐 그래도 통치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면 되니까. 하나님은 보통 그렇게 안하시는거 같아요. 반드시 고난을 먼저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정

말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일을 맡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맡겨보기 전에 보디발의 가정도 맡겨보고 보디발의 그 감옥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진

정하게 겨우 큰 사람이 되었을 때 야곱과 10명의 형들 그리고 그 자손들을 맡기셨을 때 그 때 참 잘해드렸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한 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일을 통해서 지혜와 능력을 다양하게 주신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눅 16:10)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 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물론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하는 것은 물질을 말합니다. 물질에 충성 된 자는 큰 것 에도 충성 되고

물질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 했고 그리고 헌

물을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물질은 지극히 작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외에 내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겁니다. 내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 되고. 처음부터 큰 것을 맡기면서 큰 것에 충성되

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유 있는 조그마한 시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재능, 그리고 내가

피땀 흘려서 벌어서 조그마한 여유 갖지게되는 그 물질을 하나님은 어떻게 쓰시나 우리가 그것에 충성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요셉은 가정 총무로, 처음에는 종으로 들어갔을 테니까 얼

마나 작았겠어요? 신참내기 종 그러면 막 허드렛일 많이 했을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제일 큰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내가 우리 주인이 다

른 것 들은 다 금하지 않았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라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리이까.”하고 도망 갔잖아요.

요셉은 자기 위치를 알았고 그리고 이렇게 출입을 알았잖아요. 출입. 솔로몬이

그렇게 알기를 원했던 하

나님 저는 출입을 알지 못하는 작은 아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아직 출입을 잘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은 출입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옥에서도 작은 일에 충성을 했습니다. 섬기는

 일에 충성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하셨는데 너희 중에 크고자 하거든 제일 작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지극히 작은 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사람을 섬겼잖아요. 오죽했으면 냄새나는

 발을 12제자의 발을 씻겨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높이 올리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점점 큰 것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작은 역사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에도 동참케 하십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우리 집에는 금 그릇도 은 그릇도 뭐 그리고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크고 작은게 있는게  아니라 귀히 쓰는 것과 천히 쓰는게 있을 뿐이에요.

 깨끗하게 예비되면 하나님이 귀히 쓰는구나 깨끗하게 예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크기가 중요한게 아니라 작은 것에 충성하고 깨끗하게 예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사로서 뭐가 필요하냐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내가 평범한 대학교에서 일 아니면 내가 어떤 학교에서나 직장

에서나 일을 할 때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걸 원하십니다. 거기서 예비가 되는 거에요. 하나님은 거기

에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나중에  크게 바꾸십니다.

요셉에게 이집트를 맡겨놓은 것처럼 요셉에게 그 야곱과 그 형들과 그 가족들을 맡기셔서 큰 민족을 이

룩을 할 기틀을 마련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

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게 작은 일에 충성되이 하는 것 그러고나면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2장 보면 "여러 가지 교회 안의 은사가 있는데 통역하는 은사도 있고

방언하는 은사도 있고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세례(?)하는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것을 너희에게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셨잖아요.

일단 은사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어

요. 근데 문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완전한 인격이 형상화 된 것이 13장인데 서로 사랑하

고 서로 섬기고 그 다음에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은 은사 중에서도 가장 큰 은사인 거에요. 그리고 이 세상

에서 제일 좋은 은사인거에요. 그러나 누구나 다 사랑하고 다 섬겨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임재를 경험했고 그리고 주어진 삶에 정말 성실했습니다.

창세기 39장 한 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창39:2-3)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39장 그 뒤에는 종에서의 일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본인도 느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주어진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배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고 성숙한 인격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

푸십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제 우리 전도 집회 때 그 10절 을 읽으면서 '너희는 나의 종 그 다음에 증

인으로 택함을 입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설명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1장 2절에 보면내가 물 가운데

건널 때에 함께할 것이요 강을 지날 때에 물이 너희를 침범치 못할 것이요 너희가 불 가운데에 행할 때에라도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희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이사야 42장 2절에 말씀 나와 있잖아

요 . 그러면서도 동방 서방에서부터 다 모으고 증인으로 택했다고 친히 설명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고난을 받든지 아니면 흩어져서 정말 어려움을 겪든지나라가 제대로 있든지 없든지 하

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흥망성쇠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63장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63장 9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

(사 63:9)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

그들이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켜서 망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자를 앞서 보내 구원하시기도 하셨습

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

시고 사랑을 베푸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불순종의 길을 고집했습

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징계하셨다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란에 동참하게 하고 계십니다. 동참 해주시는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하면서 이제 어려움을 고난을 잘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낮과 밤이 있는데요.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낮도 필요하지만 밤도 필요해요. 식물이

 성장할 때 태음이 자라나게 하잖아요. 달이 자라게 하는게 아니라

인생의 밤도 있듯이 식물이 밤에 자라나는 것처럼 인생에 밤이 있어야 고난과 환란이 있어야 성장이 있

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깐 고난을 받게 하시며 친히 온전케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깨어 견고케 하

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고 계시고 환란

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겪어도 힘들겠지만 견딜 수 있겠죠

잠시 견디면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길고 영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요.  이제 요셉이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을 받으면서 신앙이 성장해서 그래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섭리라는 것은 신 또는 신적인 존재가 피

조물에 대한 어떤 계획과 의도를 고 있는데 그것을 섭리라고 해요. 그럼 요셉이 어떤 섭리를 깨달았을까

창세기 45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창 45:5)

[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7절 읽겠습니다.앞서 보내셨나니

(창 45:7-8)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3번 얘기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들은 형들이 팔았지만 결국은 형님들이 보낸게 아니로라 하나

님이 보내셨습니다. 왜요? 생명을 구원하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

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미움과 원망이 있을 때에 만약에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나를 지금 연단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아마 미움과 그 어떤 불편한 마음들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죽

일만큼 원한을 품지는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낸 것이 나

를 구원자로 먼저 부르신거구나 그리고 나를 먼저 택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섭리라는게 있었구나. 바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시작할 때 말쓰 드린 것처럼 자기가 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다가 특별히 형

들의 안부를 물으러 가서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팔려가지고 이집트로 끌려와서 종살이 하다가 누명 쓰고

감옥 가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극과극 시간인거잖아요. 아마 종살이 하고 있는 사람이 이집트 총

리 양민이 되는 것도 힘든데 총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났죠.

근데 하나님은 극과 극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됐을 때에는 자기 형들

의 그 악을 잊어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 낳고 므낫세 잊어버리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보상이

참으로 컸습니다. 13년의 보상을 이집트 총리라는 영광으로  다 갚아갔기 때문에 잊어버리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둘째 낳으니까 에브라임이라고 해서 창성케함 이랬잖아요. 여기까지도 참 좋잖아요. 훈훈한 이

야기고 정말 감사한 이야긴데 형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

습니다.

자기가 이집트 총리가 된 진짜 이유를.  구원자,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 후손들을 다 기르는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 하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 약속을 요셉도 알고 있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뤄야 되는데 언제 큰

민족을 이룰까? 70명 가지곤 큰 민족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집트 430년이 지나간 후에 정말 큰 민족이 되

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신다고 했으니까

니들 나갈 때 나 여기다 묻었는데 내 시체 가지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요셉의 시

체를 가지고 갔습니다. 요셉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자신의 인생에 대입할 때 우리는 좀 더 신앙

적인 사람이 되고 신앙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배

려하기도 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네 나를 괴롭히네 내가 이런 형편에 있는 것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야

라고 마구마구 생각하면 마구마구 기분이 나빠지고 죄를 많이 짓지만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좀 생각해보고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을거야. 내가 겪는 바로는 보기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섭리일 수

있거든요. 요셉의 13년의 삶은 요셉이 보기에는 정말 힘든 시기였지만 하나님은 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그 과정이고 그리고 어떤 발판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스케일로 우리들의 삶을 이해하니까

뭔가 당장 힘들어요. 물론 섭리를 이해했다고 그래서 갑자기잘  우리들이 신령하게 변하고 감사하게 되고

원망이 막 감사로 변하고 불평이 막 찬양으로 바뀌는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거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받아야 할 교훈이 있고  내가 여기서 저

사람과 함께정말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구나라고 만약에 하나님을 대입하면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틀림없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당장은 이해를 못하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6개월 후 5년을 지나면 자신의 사정을 상황을 딱 돌아보면 내

가 그때 내가 그랬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했고 저사람이 내인생에서 이것 때문에-